

부모와 담임교사의 건강증진행위와 구강환경관리 능력이 아동의 건강상태에 미치는 영향

류정숙*, 장기완**

*극동정보대학 치위생과, **전북대학교 치의학전문대학원, 구강생체과학연구소, BK21

■ 연구배경 및 목적

일반적으로 초등학교 학생들은 건강관리에 대한 인지와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스스로의 실천 능력이 미흡한 시기이므로 학부모와 교사 등의 지도가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아동의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해 부모와 교사의 건강증진행위와 구강환경관리 능력이 아동의 건강증진행위와 구강환경관리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 연구방법

2008년 11월부터 12월까지 충청지역 초등학교 2개교의 초등학생 고학년 264명, 학부모 198명, 교사 35명을 대상으로 자기기입식 설문도구로 건강증진행위와 구강검사를 통한 구강환경관리능력을 측정하여 분석하였다.

■ 연구결과

부모와 담임교사의 건강생활실천 수행정도에 따른 아동의 건강상태와 건강증진행위 수행정도를 비교한 결과, 건강증진행위가 상위그룹 부모의 아동이 하위그룹 부모의 아동보다 건강증진행위 수행정도가 높으며, 구강환경관리능력도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담임교사의 건강증진행위가 상위그룹인 아동도 동일한 결과를 나타냈다.

건강증진행위는 부모의 양육방식이 자율적일수록, 학교성적, 주관적 건강상태, 건강교육필요성, 학교생활만족도, 건강생활실천정도,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 구강환경관리능력 등은 높을수록 건강증진행위 수행정도가 높게 나타났다. 한편 흡연일수와 스트레스는 적을수록, BMI는 낮을수록 건강증진행위 수행정도가 높게 나타났다. 또한 구강환경관리능력은 부모의 양육방식과 순 상관관계로 나타나 부모의 양육방식이 자율적일수록 아동의 구강환경관리능력이 우수한 것으로 해석된다.

반면, 담임교사의 구강환경관리능력에 따른 아동의 건강상태와 건강증진행위 수행정도를 분석한 결과, 구강환경관리능력이 상위그룹인 담임교사의 아동과 하위그룹 담임교사의 아동이 구강환경관리능력과 BMI 및 건강증진행위 수행정도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즉 담임교사의 구강환경관리능력이 우수해도 아동의 구강환경관리능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담임교사의 구강건강관리에 대한 전문적인 지도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 결론 및 제언

부모의 양육방식이 자율적일수록, 학교생활만족도,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 등은 높을수록 건강증진행위 수행정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부모와 담임교사의 건강증진행위 수행정도와 구강환경관리능력이 상위그룹의 아동이 건강증진행위와 구강환경관리능력도 우수하였다. 그러므로 아동의 건강증진을 위해서는 자아존중감 증진과 구강보건전문인력이 부모와 교사에 대한 구강보건교육 및 지도방법에 대한 프로그램을 확대 실시함으로써 전문적인 구강보건교육은 구강보건전문인력이 실시한 후 부모와 교사가 일상생활에서 지속적으로 지도하는 등 다각적인 접근방법으로 병행하는 방안이 요구된다.